

광주시교육청, 2021년 상반기 '아버지학교' 운영

오는 10~31일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총 4회에 걸쳐 진행
아버지 교육 참여 기회 확대·건강한 가족 문화 조성 기대
'나는 어떤 아빠인가?'·'슬기로운 아빠의 소통법' 등 주제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5월 광주교육연구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아버지학교'를 운영한다. 정보원 소감당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가정 내 자녀 양육 증가로 아버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아버지학교'는 이를 고려해 아버지의 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가정 내 아버지와 자녀 간 소통과 공감대를 높여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버지학교'는 ▲나는 어떤 아빠인가? ▲

슬기로운 아빠의 소통법 ▲아빠 몸놀이 학교 ▲아빠가 먼저 시작하는 우리 아이 성교육 등을 주제로 실시된다. '아버지학교'는 5월10~31일 매주 월요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시간은 직장생활을 하는 아버지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오후 7시부터 시작된다. 시교육청 안석 시민참여담당관은 "바쁜

직장생활로 자녀와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한 아버지들이 '아버지학교'를 통해 자녀교육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을 해소하면 좋겠다"며 "'아버지학교'는 아버지가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 자녀교육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윤희기자

장성공공도서관, 어린이 인형극 '참새와 허수아비' 공연 운영

정서적 감동과 또래집단 관계촉진 위한 내용으로 구성



장성공공도서관(관장 김병성)은 4월 29일, 30일 장성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인형극을 공연했다. 이번 인형극 '참새와 허수아비'는 목요일, 금

요일 2일간 각각 2회씩 총 4회, 학교로 찾아가는 형식으로 회당 관람인원을 50명 내외로 한정하여 코로나 19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하였고 재미있는 노래와 참여 유도도 아이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우리 어린이들의 정서적 감동과 또래집단의 관계촉진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음악과 인형들의 움직임을 통하여 즐거움을 전달했다. 공연을 관람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우정과 사랑을 주제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해줘 즐거운 시간이었다. 코로나19로 답답해하던 아이들에게 꿈과 지혜를 키우는 인형극 공연을 마련해 준 장성공공도서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병성 관장은 "이번 인형극을 통해 우리 어린이들이 친구들에 대한 사랑과 우정을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문화적으로 소외된 농촌지역 어린이들의 문화예술행위 기회를 확대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기획해 나가는데 앞장설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순천시, 학교공간 아이들 목소리로 진화하다

교육경비 지원으로 원도심 작은학교 공간 혁신

허석 순천시장은 최근 순천시 교육경비 공모 사업을 통해 조성된 순천시 이수중학교 혁신 프로젝트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균형발전을 위한 학교 혁신 프로젝트'사업은 2020년 원도심에 위치한 학생 수가 적은 이수중, 동산여중, 순천여중 3개교에 총 4억원의 교육 경비를 지원하여 사업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수중학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학습과 놀이, 소통과 휴식 등 학교를 균형 잡힌 교육 공간으로 재탄생 시켰다.

초기 기획단계에서 학생들의 생각하기 시간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고, 교사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으로 공간 혁신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학교 구성원들의 소통과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사업이 이루어져 높은 만족도로 이어졌다는 평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수중의 공간혁신은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의 힘을 보여준 멋진 작품이자 모범 사례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유로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순천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2021년에도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돌봄,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를 대비해 학교 공간 혁신 및 재구성 사업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순천=김승호기자

보성교육지원청,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추진협의회 실시

미래교육 선제적 대응 위한 공감대 형성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한관)은 4월 30일 영상회의실에서 전라남도보성교육참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추진협의회는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추진에 있어 신규 대상 학교 선정 협의, 보성 지역 교육공동체 공감대 형성 방안,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됐다.

이번 협의회는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조치 아래 개최되었고,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교육

대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정책 사업에 대한 설명, 이에 따른 2021년도 보성교육지원청의 추진 계획을 안내, 대상 학교를 선정하기 위한 협의 순으로 진행됐다.

5월 중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과 예비학부모 등 지역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4월 27일 보성 관내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2개 면 4개 학교 교장들을 대상으로, 4월 28일 같은 학교

운영위원장 및 학부모회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운영위원은 "기존의 폐쇄과는 달리, 학교를 살리는 정책이라는 것을 알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학교라고 여겨지며,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한관 교육장은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추진에 있어 학부모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학생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미래형 통합운영학교가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성=김택순기자

광주 서진여고, '찾아가는 힐링스쿨 콘서트'



광주 서진여고 학생 및 교직원이 지난 4월27일 교내 잔디운동장에서 실시된 '찾아가는 힐링스쿨 콘서트'를 통해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받았다. '찾아가는 힐링스쿨 콘서트'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위축된 학교현장을 찾아가 아름다운 음악을 공연하는 광주시교육청 사업이다.

2일 서진여고에 따르면 '찾아가는 힐링스쿨

콘서트'는 점심시간에 진행됐다. 서진여고 학생과 교직원, 광주시교육청 이승우 교육국장 및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

이번 콘서트는 공연그룹 '양상블 아르코'가 주축이 돼 진행됐다. 공연은 '난감하네'·'너영 너영'·'열두 달이 좋아' 등 국악, '이탈리아 거리의 노래(소프라노 솔로)'·'걱정말아요 그대(바리톤 솔로)'·'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OST 'All I Ask Of You(소프라노·바리톤 듀엣)' 등 성악, 비발디의 사계 중 '여름'·'내 사랑 내 곁에'·'베토벤 바이러스' 등 전자바이올린 연주로 구성됐다.

최윤희기자

